

한국당, 소위에서 합의해 놓고 느닷없이 “공청회 하자” 따지

국방위 5·18특별법 무산?

1980년 5월 21일 도청앞 집단발포 책임자·계엄군 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 등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었다.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격론 끝에 법안 일부 조항을 달아낸 후 법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국회법 규정을 거론하며 ‘공청회 개최’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한국당의 집요한 반대, 기약 없는 공청회, 내년 2월 임시회까지의 정치상황 변화 등 변수를 감안하면 ‘내년 2월 임시회 처리’ 역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위 전체회의 의결 무산 이유는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법안 제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

절차상 이유로 집요한 반대

민주당 의원들 강한 반발

2월 임시국회 처리 놓고

민주당 비판 국민의당 낙관

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소위(위원장 한국당 경대수 의원) 심사에서 여야가 격론 끝에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에 뜻을 모은바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접착됐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의 다른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줄기차게 법안 의결 전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고, 5·18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서영교 의원),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김진표 의원),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

안이므로 그대로 의결하자”(이철희 의원)고 비판도 하고 호소도했지만 한국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가능할까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의 산회 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양측 모두 조속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안 처리를 한국당에 촉구했지만, 법안 통과 불발의 이유(한국당의 반대 이유)와 법안 통과 시점 및 가능성에 대해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통화에서 “외견상 김영우 위원장을 비롯 한국당은 특별법 내용이 아닌 절차(국회법, 공청회 개최)를 문제삼았으나, 실제로는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 국방위원들은 한국당 반대에도 내년 2월 임시회 처리에 낙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국방위원) 역시 “한국당은 법안 내용 아닌 절차(공청회 개최)를 문제삼고 있다”며 내년 2월 임시회 회기내 처리를 낙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군 의문사 유가족의 눈물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군사상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며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공청회를 요구, 처리가 불발됐다.
/연합뉴스

“난징대학살 추모…한국인 깊은 동질감” 文대통령 한국인 간담회 방중일정 시작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2시간 30여분간의 비행 끝에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장, 김홍기 중국한국상회 부회장을 비롯해 중국 측의 쿵잉안 유 외교부 아주담당 부장조리, 추귀홍 주한대사,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공항 영접 이후 문 대통령은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

석하고, 오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가로막혔던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하심타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닿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첫 발을 디딘 문 대통령이 화두로 꺼낸 것은 ‘난징대학살’이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 공식 일정인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을 소재로 발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

의 뜻을 표했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대학살을 거론하며 한중간 역사적 동질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은 중국인의 아픈 역사로 기록된 난징대학살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때인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만 명 넘는 중국인이 일본군에 학살당한 사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주요 지도자들도 문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던 순간 장쑤성 난징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른 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중국방문 첫 메시지로 난징대학살을 거론한 것은 한중 양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항일운동을 했던 고난의 역사를 공유한 데다 한국도 난징대학살에서 처럼 술한 국민이 일제의 총칼에 스러졌다는 동질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심지 깊은 기개 손에 잡히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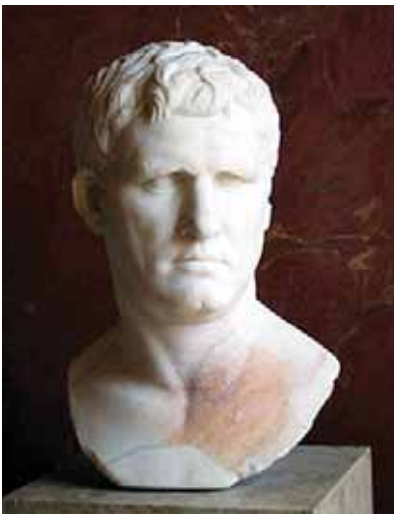


(207) 아그리파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예·체능계 실기시험은 내년 1,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예능계열 입시생들은 실기연습에 열중하면서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미술대학 실기 시험과제는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한때 석고 대상이 필수였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그리파, 줄리앙, 브루투스, 비너스 석고상들을 수년에 걸쳐 암기하듯이 그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대상을 배우기 위한 모티브로 시작한 ‘아그리파’ 석고상이 로마시



아그리파 조각상

되기도 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참 뿌러운 관계이다.

아그리파 석고상을 대성하는 학생의 시점이 되어 선을 나눠보고 명암을 파악하여 양감, 질감, 반사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가능해본다. 체적이 건장하고 다부진, 그러면서도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였던 아그리파의 심지 깊은 기개가 굽슬머리와 굳게 다문 입과 눈매에서 느껴진다.

〈광주 비엔날레 광주플리부장·미술사박사〉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금융의 기본을 생각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금융?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며
돈든한 내일을 보장하는 금융!
이런 게 우체국 금융의 기본
우체국, 금융의 기본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소중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

우체국 준등기서비스

일반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경우,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SMS등으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국제특급우편

EMS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방법

1. 스마트폰에 우체국 앱 설치
2. 회원가입/로그인
3. 홈에서 "EMS→우체국에서 접수"선택
4. 배송정보, 결제정보(선택)입력→예약신청

* 기표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 앱의 바코드를 보여주고 우편창구에 접수

>>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 경우
→통기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우편물에 기재
→기다리지 않고 우체국에 제출

- * 접수(결제)과는 SMS로 발송해드립니다.
- * 종이 영수증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출력가능합니다. (www.epost.go.kr)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체크카드

해외여행 갈 때 우체국 체크카드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